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2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2기

제2강
9월 27일(화)
오후 7시-9시

마르코 폴로와 쿠빌라이 칸

강사: **마우리찌오 리오또 (Maurizio Riotto)** 교수
이탈리아 팔레르모 대학교에서 서양 고고학을 전공하고, 로마대학교에서 '한국의 청동기 시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폴리 "L'Orientale" 대학교에서 29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안양대학교 정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문학사』(1996), 『한국고전시선집』(2004), 『한국사』(2005), 『신라의 비밀』(2014), 『시인과 마법사』(2017)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삼국유사』, 『왕오천축국전』, 『해동고승전』, 『제왕운기』, 이문열의 『금시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시인』, 김승옥의 『무진기행』, 조정래의 『유형의 땅』 등이 있고, 종합적으로 한국학에 대한 책 30권, 논문 150편 이상 썼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는 역사를 통틀어 여행 문학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수많은 질문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작가가 실제로 중국에 갔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 강의에서는 13세기 이전의 동서양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마르코 폴로의 걸작이 오늘날에도 여행기라기보다 환상적인 소설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가 구현된 역학을 설명할 것이다. 마르코 폴로의 작품은 허구적 구조와 단순한 내용으로 수세기 동안 독자를 매료시켰는데, 그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점이라 하겠다.

Considered one of the main works of travel literature of all time, Marco Polo's travelogue instead presents numerous questions and problems that have even led to doubts as to whether the author actually went to China. This special lecture, starting from the relations between East and West before the 13th century, explains the dynamics of the realization of Marco Polo's master piece, pointing out those aspects that still today make it more like a fantastic novel than a travel diary.